

54236 1984. 6월

새날이 오면

한국 교회 지성의 목소리 장기천칼럼

오늘의 교회와 사회의 현실을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직시하며 쓴 양심의 소리.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실의 수기」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새 날이 오기만을 희망하면서 쓴 지성의 소리.

이 시대의 어두움 한가운데서 새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보며, 이사야처럼 옷을 벗고 시대를 고발하며 쓴 예언의 소리.

장기천 목사를 가까운데서 지켜보아온 나는 이 칼럼이 시대의 예언자의 글이며 정의가 부르는대로 진리가 부르는대로 복종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살아있는 증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지성인들, 진리를 사모하고 동경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장기천 칼럼집」은 다정한 마음의 길벗이 되어줄 것이다.

변선훈 (감신대교수)

발행 · 제작 기독교방송

총 판 한발출판사 362-7300



강 문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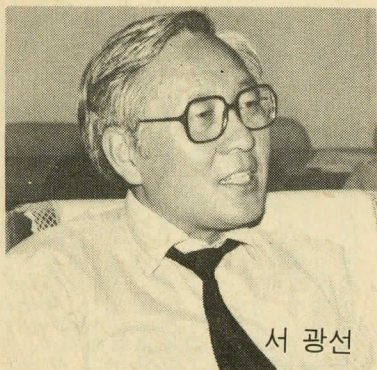
박 영숙

● 특별좌담

평신도운동의 어제 · 오늘 ·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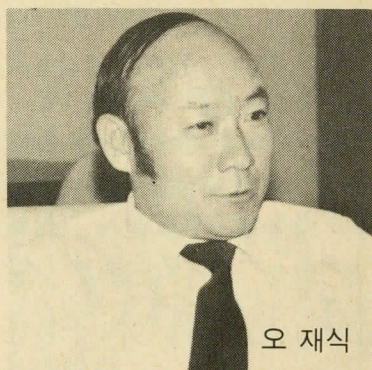
좌담 : 강 문규 <대한YMCA연맹 총무>
박 영숙 <대한YWCA 연합회 공보출판위원>
서 광선 <현대교회 목사>
오 재식 <NCC 선교훈련원장>

기록 : 이 상덕



서 광선

서광선 : 우선 「평신도」하면, 종교적 행사나 제사에 관계하지 않는 신도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전부터 사제들 중심으로, 즉 전문적으로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목사들이나 혹은 수녀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하는 것이 곧 기독교이고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의 주인이 평신도인가? 하는 논란들을 많이 합니다만 신교의 출발은 루터가 제창한 『모든 사람, 성경을 읽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제이다』라는 정신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저희 신교는 역시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나라에 평신도운동이 있는가? 있다면 과연



오 재식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청년회인 YMCA연맹이 창설된지 70주년을 맞이하여 YMCA가 하나의 교회이면서 교회밖에 있는 신앙공동체로서 발전해 온 것을 축하하면서 이와 연관하여 개신교 백주년을 맞은 평신도운동의 역사와 현주소, 그리고 내일의 좌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재식 원장님께서 에큐메니칼적인 차원에서 평신도운동을 정의해 주시지요.

오재식 : 저는 사실 「평신도」에 「평」자를 넣는 것도 불만이에요. 그냥 신도운동이라고 하면 사제까지 다 포함될텐데 하필 평신도운동이라고 하는지... 제가 한 10

년 동안 외국에 있다 돌아와 보니 교회가 상당히 성직자 중심으로 굳어지는 경향을 느낍니다. 하다 못해 장로라도 되야지, 혹은 그렇지 못하면 제직이라도 되야지..., 하는 풍토를 느꼈읍니다. 그렇다면 제직도 아닌 사람은 무엇이나? 곧 평신도이다. 이렇게 평신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것은 조금 시정(時正)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교회가 개교회주의화 하다보니 점점 봉건적체제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령 청년회가 무슨 일을 하려하면 여러 단계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예산을 할당받는다든지 하는 식의 체제가 굳기 시작하니깐 평신도운동의 범위가 60년대에 비해 점점 위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평신도 전국대회가 있고 평신도회장의 발언이 상당히 강했는데 점점 줄어들고 이제 반대로 장로회가 생기고 그 발언도 강해 이들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해졌습니다.

박영숙 : 평신도라는 말이 어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강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뜻에서 본다면 신도 속에 성직자

를 포함한 모든 평신도가 포함되는데 「평신도는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보다 「평신도는 사제의 동역자」라는 뜻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동역자의 관계가 아닌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평신도운동이 60년대에 비해 한국에서 약화돼 가고 있는 구체적인 예가 NCC가 기독교협의회로 되어 있을 때는 평신도기관이나 운동체들이 전부 참여해서 평신도기관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전체적인 선교범위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어느새 교회협의회로 되면서 더욱 더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군요. 또 한 가지 어떤 조사에서 나왔는데 한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평신도의 참여는 19%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인구의 80%를 차지한다는 여성은 과연 몇 프로나 참여하고 있는지... 교역자의 특권의식은 점점 더 강해지고 평신도의 의존의식은 더욱 더 짙어져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평신도운동을 약화시키고 평신도운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지경까지 끌고 왔다고 봅니다.

서광선 : 평신도운동의 문제라

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박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전체구성을 보면 여신도가 70~75%, 구교의 경우 80%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여성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교회에서 여성들은 조직의 힘으로서 발언권이 전혀 없고, 있다 해도 여신도회라든지 여전도회라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만을 확장하는 것 뿐입니다. 각 교회에도 평신도운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개교회중심이라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오원장님, 에큐메니칼적으로 하고 있는 평신도운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오재식 : 기구로 하면 YMCA도 있잖아요. CCA나 NCC에도 평신도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분화되더니 청년문제, 여성문제, 도시산업문제가 되는 식으로 점점 전문화되고 나중엔 평신도국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요. 통틀어 평신도들의 운동이라는 커다란 덩어리(局)는 자취를 감추고, 훨씬 더 침체화되고 분업화된, 카테고리(범위)가 한정된 「여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에서 본다면 신도 속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다 포함된다. 따라서 평신도는 사제의 동역자인데, 현재 동역자의 관계가 아닌 것이 문제이다.

「청년」... 등의 운동으로 분화되지요. 하나의 커다란 힘을 동원시키는 그런 실체로서 남아 있지 않고 국지적인 사항에 오히려 한정되어 전체적인 흐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박영숙 : 그런데 모든 신도에게 평등한 권리와 위치 등 모든 것이 주어졌다면 그렇게 침체화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야말로 여성차별, 청년소외, 장애인소외 등이 완전히 시정되면 이런 침체화된 그룹들을 위한 필요가 없지요.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청년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평신도운동이 모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나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서광선 : YWCA는 평신도운동 단체로서 그러한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나요?

박영숙 : 원칙적, 원리적인 것에는 물론 다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전위대」라는 차원에서 과연 그러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회의가 와요.

서광선 : 그럼 YMCA의 평신도운동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을 들어볼까요.

강문규 : 평신도운동은 오늘 우리 교직제도와 관계없는 신도들의 자유로운 운동이라 봅니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가 인정되고 정착이 되면 반드시 경직현상이 오게 돼있습니다. 종교의식에서 경직현상이 오고, 다음에 리더쉽(지도력)에 있어서 제충이 생기면서 경직현상이 옵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에 대한 하나의 혁신운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개신교 자체의 교직제도에 또 경직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자체의 갱신을 해 나가려는 동기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운동」이라는 것으로 표현

되어 YMCA나 YWCA운동이 생겨났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승받고 있는 개신교 안에서의 하나의 혁신운동, 즉 기독교의 사명이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새로와지려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YMCA, YWCA, 절제회... 등의 운동체들이죠. 잇슈는 다르지만 주로 신도들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운동으로서 우리의 개신교가 젊어지려는 하나의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혁신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봄에 새싹이 땅 밑에서 올라오듯이 말이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평신도라는 표현도 꽤 나쁘지는 않지요. 중신도도 아니고 상신도도 아니고 평신도...

서광선 : 하신도가 낫지 않을까요.?(웃음)

강문규 : 뭐 하신도든지 하영든(웃음) 가장 평범한 신도들의 뜻이란 본능적으로, 체취로 느끼는데 있거든요. 우리가 기지개를 펼 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운동이 필요할 때 기지개가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평신도운동은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

안에 어디가 굳어 간다든지, 운동이 필요할 때, 즉 「종교적 경직현상에서 나오는 하나의 생리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YWCA나 YMCA운동이 일어난 1850년대에 보면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의 격동기였는데, 이때 종교와 교회가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라에서도 보면, 개화기에 물론 교회형성이 그다지 안됐지만, 도대체 지금 우리가 전승받을 교직제도만 가지고는 사회상황에 대체하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신도들이 모여서 반식민운동이나 지도자배출운동에도 참여했던 그런 형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 YMCA는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혹은 교회체질상으로나 일단 신도들의 평신도운동으로 자체를 일단 규정해 보는 거지요.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고요. 아까 장로회 얘기가 나왔는데, 교직제도에 대한 좋은 의미에서의 대항세력으로서 장로님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그게 평신도운동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조직으로 등장한다면 그것은 평신도운동을 배반하는 이율배반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가 전승받고 있는 개신교 안에서의 하나의 혁신운동, 기독교의 사명이나 역할에 대한 하나의 새로와지려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YMCA, YWCA, 절제회 등의 운동체이다.

서광선 : 하나님의 선교의 전위대로서의 평신도운동이라는 말씀, 그리고 개혁 및 갱신운동으로서의 평신도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차원의 운동은 교직자가 주도하고 평신도들은 단지 따라만 가는 식의 평신도운동과는 확실히 질적으로 다르고, 장로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영숙 : 저는 개혁의 정통성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개혁의 정통성이 지켜지려 하면 운동체 안에서 키워진 사람이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아마 YMCA도 같은 겁니다만, YWCA의 경우 밑에서부터 차차 올라오는 회원들의 운동이라기 보다 사회명

사들이나 밖의 다른 분위기에서 자란 분들이 참여함으로서 오히려 Y운동 고유의 정통성이 없어졌어요. 또 아까 갱신의 힘이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현재 이 Y사업의 대상으로서 있지 주체자로서 있지 못하다는 데 갱신의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서광선 : 아주 신랄한 반성을 지금 해 주시는데요. (웃음)

강문규 : 지금 박선생님이 지적하신「회원이 사업의 주체가 못하고 대상으로 밀려난다」는 현상은 또 이 운동 내에 경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평신도운동이 현실적으로 제일 부딪치는 문제라면 교회와의 협력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부딪칩니다. 성서적으로 목사님도 성도이니까 회원으로서의 자격인데, 운동 내에 교직자의 자리가 따로 없다는 점이 마찰의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평신도운동 내에 따로 교직자의 자리가 있게 되면 그것은 조직원리에 어긋나게 되거든요. 다음은 YMCA 같은 평신도단체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왜 교회 밖에서 활동을

하느냐는 점입니다. 이 말은 왜 예배당 밖에서 일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YMCA운동은 「큰 의미에서 교회 내의 운동인데, 교회제도 밖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오해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YMCA운동이「교회성」에 대한 강조가 약한 면도 있겠지만, 목사님들 경우는 교회를 예배당의 조직이상으로 안 보려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이상적인 것으로 60년대 초기의 에큐메니칼, 가령 CCA나 WCC 등 안에 있는 평신도국이 교회전체의 신도성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때 YMCA에는 「교회성」을 강조하는 부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평신도사업운동체는 교회성을 강조하고 교회기관에서는 평신도성을 강조하는 이상적인 상호협력관계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갈 수 없더라도 정신은 역시 그렇게 계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재식 : 강총무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두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YMCA도 신도운동으로서 과연 모든 신도를 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있는지...? 다시

평신도 운동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교회와의 협력관계이다. 평신도운동체는 교회성을 강조하고, 교회기관은 평신도성을 강조하는 이상적인 상호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면, 회원제도를 놓고 넓게 해석하면 신도운동이 되지만 YMCA 밖에서 보면 중류이상의 사회에서의 아주 폐쇄적인 회원제도, 회원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클럽식당의 회원제도... 그러한 인상을 또 주었던 말이에요. 한국에서 개교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YMCA의 회원제도가 지닌 폐쇄성이 일맥상 통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MCA자체도 어떻게 건물 내에만 정착하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신학적인 테두리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중심사업으로써 YMCA YWCA를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신도운동이라는데 대

한 분명한 이해와 폭넓은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총무님 말씀대로 교회와의 마찰이 자연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문규 : YMCA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가령 YMCA는 좁은 의미로는 교회운동이 예배당 안에 축소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치안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배당을 YMCA빌딩으로 대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신도운동에 대한 하나의 자기배반이 되겠지요. 사람들을 시설 안으로 불러들이는 평신도운동이 되지 않고, 제도나 시설을 근거로 하여 확산해 나가는 운동이 되지 않으면 YMCA에 대한 자기배반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기독교운동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가 될 줄 압니다.

서광선 : 역사적으로 YMCA가 시작한 그 때를 보면, 역시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만민공동회가 해산된 후였는데요, 그래서 독립협회만 해도 일종의 평신도운동으로 스스로를 보았던 것 같아요. 독립협회 사람들은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결국은 기독교정신에 입

각해서 「어떻게 개화를 할 것인가」, 「독립을 할 것인가」, 「주체성을 가진 나라를 만들 것인가」하는 사회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그게 해산되니까 거기에 공백기가 생기면서 「YMCA 운동을 하자...」, 국제적 조직을 들여와 그 안에서 일하면 여러 가지로 오해도 덜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YMCA운동의 시작은 역시 회원제도라든지 클럽의식을 갖고 하던 운동이라기 보다는 「민족적 민중운동」의 확산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확산」이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3.1운동까지 이끌어가는 YMCA의 선교적인 시각에 역사적 의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초기 YMCA운동의 시작
은 「민족적 민중운동」의 확산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확산」이라는 시각에서 시작했다. 그것이 3.1운동까지 이끌어가는 YMCA의 선교적 시각의 역사적 의의이다.

강문규 : 우리 개신교 역사가 100년, YMCA역사가 80주년이 됐고, 전국기구를 가진 것이 금년이 70주년인데 100년 역사의 장로교가 전국을 체계화하는데 YMCA보다 오히려 더 느렸어요. 그것은 바로 YMCA가 현대 사회와 조직사회에 대해 교회보다 민감한 시대적 감각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빨리 변천해가는 시대적 상황에 가벼운 신도의 체질을 갖고 적응해 갔다고 봅니다. 각 나라마다 YMCA의 특징이 다 다른데요, 한국의 YMCA가 세계에 매우 자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YMCA가 식민 치하의 사회상황 속에서 한일 투쟁을 YMCA의 선교사명과 연결해서 행동에 옮긴 공적이 한국YMCA가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다음은 전통적으로 YMCA는 도시를 배경으로 성했고 도시 안에서도 비교적 중산층을 지지기반으로 했는데 그러한 철학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농촌사업운동을 초창기부터 강조했지요. 그런 면에서는 초창기 역사에 시대적 민감성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 80년대에 와서 YMCA가 가지고 있는 평신

도선교단체로서의 선교적 사명이 무엇이나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갈등도 많고 자기 이해에 대한 의견도 분산돼 있는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광선 :여지껏 평신도운동의 일환으로서 YWCA나 YMCA를 얘기해 왔지만, YMCA하고 YWCA 하면 이미지가 평신도운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중산층의 사교클럽, 아니면 노래하고 수영하고 체육하고 오락을 잘 하는 단체이고 기독교라든지, 신도의 운동체라 하는 것은 항상 뒷전에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져온 분도 많을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Y에 관계되는 두 분께서 독자 여러분들께 이미지를 쇄신하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문규 :YMCA도 일반조직 속에서, 기독교운동 속에서 비판을 받을 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서는 겸허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가령 중산층이상 만이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 전개프로그램이 2차적 오락지향성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일면 타당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YMCA의 경우, 해방 전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해방 후에 YMCA를 재건할 때 미국식 YMCA철학에 많이 만연이 되었어요. 유럽에서는 신앙운동으로서의 역사가 배경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 분파되면서 건물을 중심으로 중산층에게 2차적으로 봉사하는 경향이 진해졌지요. 미국적인 재건의 물결 속에서 우리 YMCA의 이미지도 일단 그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척 했는데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중산층도 없는데서 중산층을 증강하려 했으니 됐습니까? 여가가 없는 사람에게 여가를 내라 하니 여가를 못 내지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중산층을 전제로 한 미국식 YMCA는 한국에서 뿌리를 못 박았읍니다. 다음에 YMCA운동의 하나의 특색은 YMCA는 철학이 남의 기부나 현금을 받아 좋은 일은 내가 하겠다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목적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수익성사업을 재정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단체가 종잡아 100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재정적으로 독립한 단체가 YMCA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목적에서 이탈해 수단이 목적의 자리에 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박영숙 :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비판하는 각도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YWCA의 경우 회원수준에서 되어서는 프로그램을 보고 Y운동을 전부 평가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YWCA라는 것이 교회와 사회의 중간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있지만, 회원의 운동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갖고 YWCA운동을 평가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단지 초창기 민족사에서 역할하던 기풍 및 성품이 어째서 줄어들었는가 하는 점에서 비판해야 받을 점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볼 때 재정적 자립이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어느 가진 사람이 많은 재정적 공헌을 함으로 해서 재정을 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단체가 움직여져야 한다는 대 문제가 있

”
Y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나 주력사업이 민족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민족사회에 일체감을 갖고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수렴해야 발전이 있다.

“
읍니다. 그러다보니 때에 따라 그들의 취향이 역사의식에 철저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있는데, 대개 아닌 쪽이 강해서 오늘의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Y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라든지 주력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족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면서, 민족사회에 일체감을 갖고 전개되고 있는가 그런 시각으로 평가를 내리고, 또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특히 YWCA는 이미 일본의 문화통치의 소산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혹시 그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누적되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자체내 반성은 필요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을 내놓고 일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다는 출발점이 YMCA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들 말하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YWCA 역사를 보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시 교회여성들은 남신도들 보다는 강하게 항거하여 투옥까지 당한데 견주어 보면, 오히려 쉬운 쪽으로 일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재식 : YMCA가 저는 기독교회에 상당히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적인 도구를 과감하게 썼다고 하는 것, 가령 교회가 피아노밖에 생각치 못할 때 「기타」를 YMCA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 것은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서양식 전통으로 경건한 것만 생각하던 교회를 세속화시켜가는 과정에서 YMCA가 끼친 공헌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인상깊은 것이, 영혼만을 거룩히 여기던 당시 교회안에 체(體), 즉 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교회가 갖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어요. 몸의

신학은 YMCA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방시키고 많이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몇 가지 점만 보더라도 신도운동으로서의 YMCA, YWCA의 역할은, 민족사의 시점을 떠나서 일반사회나 신앙적 입장에서든 상당히 많은 돌파구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광선 : YMCA나 YWCA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문화운동체로서 서양문화 이식의 매체가 된 것도 있지만 또한 민족적인 문화, 예를 들어 탈춤을 소개하고 민속 프로그램을 소개한 것 등을 기독교문화단체로서 민족문화형성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봐요. 오늘의 시점에서도 유교화된 한국의 기독교가 타부시하는 청소년문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의미에서도 YMCA·YWCA가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방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0년대를 향한 좌표를 강충무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강문규 : 무엇보다도 운동성 지향이 과제가 되겠지요. 교회에 예배당 안에 정착했을 때 평신도운동

YMCA나 YWCA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문화운동체로서 서양문화 이식의 매체가 된 것도 있지만, 민족적인 문화(탈춤, 농악 등)를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민족문화형성에 대한 공헌이 되었다.

이 나왔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시작한 YMCA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YMCA빌딩 안에 정착을 해버리면 또 다른 운동이 나오기 마련인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있는데요, 90년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YMCA가 이 운동성을 어렵게 지속 내지는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오원장님과 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결국 교회의 전위대적인 선교의 집단인데 이것은 문화와 교육의 영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집단이라고 말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문화는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문화의 방향으로 많이 기울기 때문에 때로 타락해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차이코프스키곡의 발레를 감상하는 이런 고급문화보다도 오히려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선교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 사명을 지켜가겠습니다. 교육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조급한 제도적 교육, 학교교육, 형식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 사회상황에 반해 우리 YMCA는 캠프생활 등을 위주로 하는 생활교육, 즉 실질교육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0년대를 바라보는 좌표의 설정인데요, 저는 항상 YMCA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YMCA의 태동기의 상황을 놓고 늘 반성합니다. 기존가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밀려 오면서 기존공동체가 부서지는 것을 다시 정립하기 시작한 것이 YMCA가 가졌던 사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의 변화처럼 모든 공동체를 붕괴시킨 과격한 세대가 없었다고 우리가 본다면 이런, 사회상황 속에서 YMCA가 적은 단위의 생활

공동체를 지구력을 가지고 재건해 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필요한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환경은 가족공동체조차 가족만이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가정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민족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의 모든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YMCA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개하고 있는 시민중계실, 평화운동, 청소년문화운동 등 이 모든 것이 성서적인 입장에서 민족공동체를 재건해 나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과 이 공동체를 파괴해가는 세력은 운동체들이 힘을 모아 대처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박영숙 :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군요. 현대 도시화, 산업화, 사회에서 가정파괴를 염려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의 사회공동체 파괴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제가 YWCA나 교회기관에서 일하면서 깨닫은 것은 「온전한 것의 균형을 깨는 부분을 보는

눈」을 조금씩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균형의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YMCA가 명실공히 청소년운동기관으로 부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MCA·YWCA가 창설시와는 달리, 근래에는 일반단체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YMCA·YWCA는 본래의 개척정신과 선구자적인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과제를 과감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YWCA의 경우, 여성의 인간화에 운동에 긍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선구자적인 안목을 잃었을 때 단순히 하나의 문화단체나 소비자단체로 전락될 위험성도 있지요. 70년대의 학생·청년운동정신을 되살려서 YMCA·YWCA가 새로운 개혁을 시도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강문규 : 요즈음 각종 봉사단체가 범람해 소위 사이비적인 청소년단체가 많습니다. 청소년의 육성은 가장 지구력을 요하는 장기적 사업인데 일시적이고 화려한 사업으로만 눈을 돌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육성사업이 거의 없는 편이니

YMCA·YWCA는 청소년을 단순히 문제아동을 다루는 각도에서만 이해하는 사회에 「청년성」에 대한 이해를 인식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메시지를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을 전개해 주었으면 한다.

다. 기독교유관조직이 서로 모여 공동과제를 협의하며 청소년육성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재식 : Y운동 및 프로그램은 너무 도시중산층 중심경향인데, 농촌의 청소년, 직업청소년 등에도 눈길을 쏟아주셨으면 합니다.

강문규 : 일반적인 느낌과는 달리 저희 YMCA는 도시에 편중해서 안 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하고 현재 농촌, 직업청소년사업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5년 전부터 해마다 농촌청소년과 근로청소년 등의 실태를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YMCA가 농촌운동의 주역이 될 수는 없지만 농촌청년

교육사업, 여성교육사업 등의 예산은 사실 타부분에 비해 3배나 편중돼 있습니다. 단지 경계해야 할 것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의 경험을 농촌에 들이대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지요.

오재식 : 우리 사회에는 서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제대로 구성, 유지가 안 되고 언론도 통제되는 상황에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YMCA나 YWCA 등은 자체 운동도 중요하지만 초기의 신도운동의 사명을 자각하여 경직된 한국교회운동에 신도운동화 프로그램을 전개해 주셨으면 해요. 또 우리 사회도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고, 단순히 문제아동을 다루는 각도에서만 청소년들을 다뤄 하고 있는데, 「청년성」에 대한 이해를 사회에 널리 인식시켜 주면 좋겠어요. 한편 YMCA가 그동안 일으켜온 문화운동에 덧붙여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메시지를 제시해 주시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영숙 : 평신도운동전반에 대

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평신도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 교회갱신의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교역자의 순종적인 길들임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강화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YMCA·YWCA가 그러한 것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광선 :제가 보기에 YMCA의 시민의식개발과 평신도운동은 잘 연결이 됩니다. YMCA를 통해서 민주시민의 의식이 고취되고, 교회 안에서의 신도의 주인의식이 고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YWCA, YMCA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앞장서는 젊은이들의 운동체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운동체로서 운동성을 잃지 않

YWCA·YMCA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앞장서는 평신도운동단체로서 이 사회와 교회를 갱신시키는 맑은 물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그러한 운동체로서 운동성을 잃지 않고 나갈 것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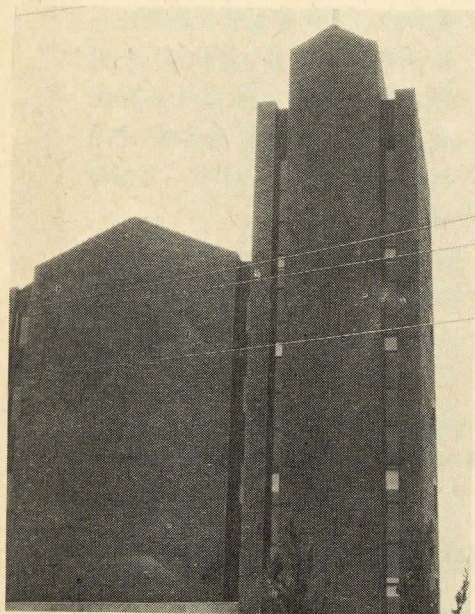
고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신도운동단체로서의 YWCA, YMCA가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앞으로도 훌륭한 평신도운동단체로 정진해 이 사회와 교회를 갱신시키는 맑은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참석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青年」영인본

한국 YMCA운동 80주년과 연맹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일제하 한국 YMCA가 20년간에 걸쳐 발행한 월간종합지 「청년」지의 영인본이 발간 되었다.

문의 : 대한 YMCA연맹 T. 752-1953
752-1954

동일장로교회 여전도회



서울 동대문구 면목 7동에 자리하고 동일장로교회(이 연길 목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활을 하며 또한 새로이 증축 단장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고 금년 표어를 내걸었다.

69년 교회 설립 당시 「동광교회」로 불리워지다가 71년 교회 이름을 「동일교회」로 개칭하였고, 70년대부터 교회가 급성장하자 360명이었던 예배당을 83년 12월에 연건평 700평의 규모로 증축하여 교회설립 14년만에 이 일대 지역의 중심교회로 변모하였다.

지난 해 4월 제 5대 담임으로 이 연길 목사를 새로 맞이한 동일교회는 조직적인 주일학교 교육과 평신도 성경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회학교 교육을 단 한 시간의 교육이지만 일주일동안 실시하는 사회교육과 군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약적이고 책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학교 표어를 “마음을 새롭게 하